

人類氣候帶適應論과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學說의 觀點에서 본 黃帝內經 五態人の 陰陽和平之人*

조기호**

【 차례 】

- I. 序論
- II. 人類氣候帶適應論의 觀點에서 본 五態人
- III.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學說의 觀點에서
본 陰陽和平之人
- IV. 結論

【 국문초록 】

인류기후대적응론과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의 관점에서 유교철학사상이 결합된 황제내경의 오태인 중 음양화평지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추 통천편에서 소사가 설명한 오태인에 대한 서로 다른 점과 구별하는 방법 및 치유법을 관련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의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특성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천편에서 소사가 설명한 소음지인은 기후대적응형질 기본 표현형 Aw⁰형에 상응하는 특성을, 태음지인은 기본 표현형 Af⁰형에 상응하는 특성을, 소양지인은 기본 표현형 Dw⁺형에 상응하는 특성을, 태양지인은 기본 표현형 Df⁺형에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음양화평지인은, 기본 표현형 Aw⁰형에서 변화된 Aw⁺형에게서, 理(principle: 人類進化理)가 발하고 氣(material: 人體)가 따르는 理發氣隨로 발생하는 形質理의 장기선편재특성이 氣發理乘으로 形質理가 제어(乘)하는 상태에서 편차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발현되는

* 이 논문은 2011년 공주대학교 학내 학술연구지원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특성에 가장 근접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황제내경 통천편에서 소사가 설명한 음양화평지인은 서론의 첫 번째 추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가 그러한 심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이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추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태인 중에서 태음지인, 소음지인, 태양지인, 소양지인과 함께 분류되는 또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타고난 理發氣隨의 장기선편재특성이 氣發理乘으로 변화되어 그 편차가 감소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이황, 성리학, 이기론, 이발기수 기발이승, 본성, 음양화평지인, 황제내경, 맞춤형예방의학, 건강관리, 사회관리, 심리진화, 기후대 적응형질 표현형.

I. 序論

유교철학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동아시아 고전 黃帝內經의 靈樞 洞天篇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내용이 있다: “黃帝曰 願略聞其意 有賢人聖人 心能略而行之乎 少師曰 蓋有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¹⁾ 여기서 황제의 질의에 대한 少師의²⁾ 답변에 나오는 陰陽和平之人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1)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1987, 원문부록 81쪽.

2) 少師가 어느 지역 출신이며 黃帝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진단 이전에 行態를 보고도 五態人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아시아대륙 東端의 한반도와 같이 호모사피엔스의 이동진화역사에서 동아프리카로부터 따뜻한 아시아대륙 남부 해안을 따라 빙하기(약 4만5천 년 전부터) 부터 이동해온 A^θ 형질을 지닌 집단과 빙하기 이후 아시아대륙 북쪽 한냉한 지역에서 이동해온 D[⊕] 형질을 지닌 집단이 상호 혼합되어, 다양한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五態人들을 많이 관찰하고 이들에 대한 임상경험도 풍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양화평지인은 몸과 마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심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이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양화평지인이 五態人 중에서 태음지인, 소음지인, 태양지인, 소양지인과 함께 분류되는 또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타고난 고유의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첫째, 음양화평지인이란 명칭에서 찾을 수 있는데, 陰陽和平이란 문구의 의미와 같이 太陰, 少陰, 太陽, 少陽처럼 陰이나 陽에 치우치지 않고 음과 양이 화평을 이루고 있는 건강한 사람을 음양화평지인이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통천편에 나오는 음양화평지인에 대한 소사의 설명들이 단점도 많이 언급된 다른 오태인의 유형들과는 달리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며 심신이 조화를 이루고 중용의 도를 따르는 이상적인 언행을 보이는 단점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앞서 인용한 황제의 질문내용(有賢人聖人 心能略而行之乎)에도 현인과 성인이 언급되어 있는데, 황제가 素問 上古天真論에서 언급한 성인과 현인에 대한 설명

부했던 의료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黃帝와의 문답에서 岐伯과의 대화에서보다도 더 일방적으로 黃帝는 짧은 질문만을 하고 少師가 항상 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과 少師가 본명이 아니고 문답용 호칭일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少師는 黃帝가 살던 지역에서는 모르던 새로운 지식을 알고 있던, 자주 만날 수 없는 먼 지역에서 방문하여 가르침을 전해준 사람인데, 겸손하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少師라고 하였거나 또는 후대 기록편집자가 黃帝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을 黃帝의 권위를 의식하여 낮추어 부른 호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단군과 비유되는 지위의 黃帝와 그의 신하로써의 少師의 신분지위가 맞다면, 대화에서는 그 호칭에 師자를 사용하지 않고 小人과 같은 칭호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과³⁾ 소사가 통천편에서 설명하는 음양화평지인에 대한 설명이 매우 유사하며, 공통적으로 이상적인 언행을 하고 심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넷째, 성인이나 현인에 비유되는 바와 같은 수준의 언행과 심신조화를 이루는 특성은 후천 환경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타고난 선천적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섯째, 황제내경 통천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李濟馬가 인간의 체질을 구분할 때 오태인중에서 음양화평지인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네 체질만으로 사상체질 학설을 제안하였다는 것도 이 첫 번째 추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⁴⁾

두 번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는 앞서 언급한 문장에서 소사의 답변내용에 음양화평지인을 포함한 오태인들이(凡五人者) 서로 다르다고 설명되어 있고,⁵⁾ 이후에 전개되는 소사의 설명에서도 음양화평지인의 특성들이 각 항목별로 다른 네 유형의 사람들과 비교되는 내용으로 설명

3) 裴秉哲, 『今釋黃帝內經 素問』, 成輔社, 1995, 57쪽; 上古天真論, “(중략)…黃帝曰…(중략)…其次有聖人者 處天地之和 從八風之理 適嗜欲于世俗之間 無悲嗔之心 行不欲離于世 被服章 舉不欲觀于俗 外不勞形於事 內無思想之患 以恬愉爲務 以自得爲功 形體不敝 精神不散 亦可以百數. 其次有賢人者 法則天地 象似日月 辨列星辰 逆從陰陽 分別四時 將從上古合同于道 亦可以使益壽而有極時”. 이 내용은 東醫寶鑑 內景篇의 身形에도 인용되어 있다(허준 엮음, 동의과학연구소 역, 『東醫寶鑑』 제1권 내경편, 휴머니스트, 2002, 134쪽 참조). 賢人和 聖인에 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선천적 특성이 발현되는 특정인들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성취 가능한 지혜와 덕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4)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黃帝內經 靈樞와 素問의 내용이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으나 苗脈이 나오는 원천(“而苗脈之所自出也”)이라고 평하였으며, 四象人 辨證論의 말미에는, 靈樞 洞天篇에 나오는 五態人論이 外形은 개략적으로 파악하였으되 臟器의 이치는 밝히지 못하여 연구가 未盡했다는 평가(“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 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 而未盡精究也”)도 하였다(李濟馬 著, 東醫學研究所 譯,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2002, 71쪽, 283쪽).

5) 물론 態, 筋骨, 氣血은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예를 들어 영양공급 상태나, 신체변화가 유도되는 종목의 운동선수로 훈련받는 경우)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추론의 내용은 심신 수양 및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통용되고 있는데, 두 번째 추론은 철학을 포함하여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인류의 체질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류체질의 분류와 그 특성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서양 여러 문화권에서 취급되어 왔으나,⁶⁾ 최근에는 한국의 근세 여성 유학자 李師朱堂(1739~1821)⁷⁾과 崔漢綺(1803~1877)⁸⁾의 기후적응인간관이 발전된 인류기후대적응론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⁹⁾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6) 시대와 문화권을 넘어 人間體質은 2, 3, 4, 5, 8, 16, 25 분류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먼저 동아시아에서는 黃帝內經 靈樞 64장 陰陽二十五人篇에서 五行論을 기준으로 분류된 25체질론과 72장 洞天篇에서 분류된 五態人이 있고, 이제마가 네 체질로 분류한 四象體質이 있다. 그리고 인도의 Ayurveda 의학에서는 Vata, Pitta, Kapha의 비중과 균형 상태로 구분되고 있고, Hippocrates의 Four humors theory에 근거한 Four Temperaments theory에서는 Sanguine, Melancholic, Choleric, Phlegmatic의 네 체질형이 구분되며, 독일 신경정신과의사 E. Kretschmer가 분류한 마른형(Der leptosome Typ), 비만형(Der pyknische Typ), 운동형(Der athletische Typ)의 3체질분류도 있다.

7) 최삼섭, 박찬국 역, 『역주태고신기』, 성보사, 2002, 53쪽, “胎於南方 其口闊 南方之人 寬而好仁 胎於北方 其鼻魁 北方之人 倔強而好義”(李 師朱堂(1780))

8) 崔漢綺(1857) (孫炳旭 譯), 『氣學』 券二, 여강출판사, 1992, 251쪽, “赤道下之水與氣者 遷居於近極之地 生長於近極之地水與氣者 遷居於赤道下之地 不知中有不宜焉 若在極高同度之地 東西雖距數萬里 風氣無差異 遷居人物 少無攸害”, 崔漢綺(1857) 著, 孫炳旭 譯, 『氣學』 券二, 여강출판사, 1992, 223쪽, “... 是皆由於 臟腑之大小強弱 精血之清濁多寡 有此不等 至於耳目口鼻手足之用 亦類此不等 ...”.

9) 인류기후대적응론에서는 인류가 동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의 다른 기후대로 이동하여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해당 기후대의 자연환경특성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들을 기준으로 여덟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기본 표현형: Aw⁰형, Af⁰형, Dw⁺형, Df⁺형, 변형 표현형: Aw⁺형, Af⁺형, Dw⁰형, Df⁰형)이 구분되고 있다.(조기호a, 『李師朱堂의 氣候適應形質 考察』, 『한국여성철학』 15호,

음양화평지인에 대한 상기 두 추론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오태인의 각 특성들을, 인류체질특성의 발생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이 미급한 전통 체질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의 차이가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사피언스가 동아프리카에서 다양한 기후대로 이동하여 적응하는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형질들이 표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는 인류기후대적응론을 적용하여, 인류진화역사의 범주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李滉¹⁰⁾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후대적응형질특성 형성과 그 특성의 발현현상을 조명하면서 유교철학사상이 결합된 황제내경의 통천편 음양화평지인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人類氣候帶適應論의 觀點에서 본 五態人

황제내경 통천편에는 오태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점(其不等者)과 구별하는 방법(別五態之人) 및 치유법(治人之五態)에 관한 소사의 설명이 있다. 이를 근거로 오태인의 특성을 인류기후대적응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¹¹⁾ 먼저 오태인 중 태음지인을 구별할 수 있는 외형

2011, 29-66쪽; 조기호b,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學說의 理解와 應用」, 『退溪學과 儒敎文化』 49호, 2011, 165-198쪽; 조기호c, 「기후대별 환경적응체질의 발생과 특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2-2, 2006, 149-163쪽; 조기호·조한규,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람, 2008, 83-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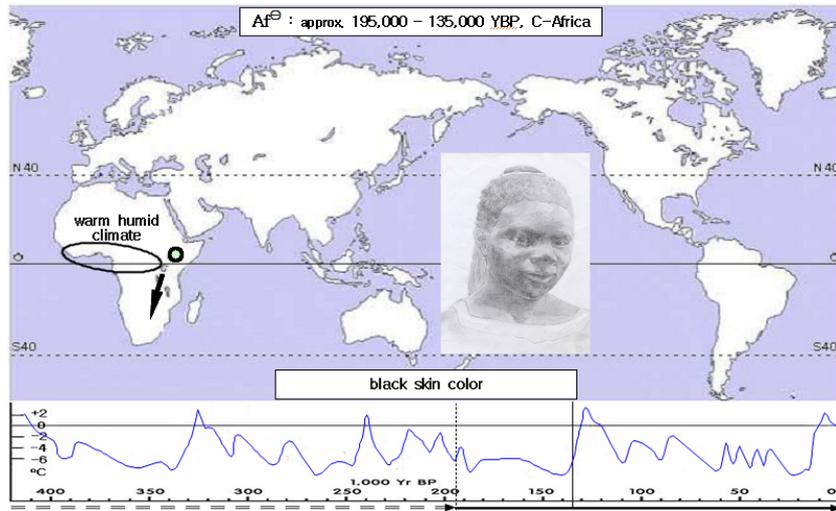
10) 李滉은 醫學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活人心方도 편찬하였다.

11) 黃帝內經 靈樞 洞天篇에 언급된 五態人을 인류기후대적응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생인류 기후대적응형질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앞서 인쇄된 참고문헌자료들에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재언급을 생략한다(각주 9) 참조).

적 특성에 관하여 소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黃帝曰 別五態之人奈何 少師曰 太陰之人 其狀黧黧然黑色 念然下意 臨臨然長大 颯然未僂 此太陰之人也”. 여기서 태음지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하여 소사가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바로 피부가 검다(其狀黧黧然黑色)는 것인데, 이는 태양의 핵융합반응으로부터 기원하는 태양광선 입사각도의 지구행성 위도별 차이에, 인류진화의 역사에서 약 19.5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한 항온포유류인 현생인류의 직접조상 호모사피언스가 동아프리카로부터 이동하면서 적응 진화한 기준으로 보아, 기후대적응형질 중에서 일사량이 적은 고위도 추운 기후대에 적응한 형질이 아니라 일사량이 많은 저위도 더운 기후대에 적응한 형질인 A^θ형질에 해당하는 특성이다. 그리고 몸집이 크다(臨臨然長大)고 하였는데 이는 마른 체형이 유리한 건조한 기후대에 적응한 특성보다는 살이 찌기 쉬운 습한 기후대에 적응한 f형질의 특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표적 외형진화 특성으로 본 태음지인은 기후대적응형질의 Af^θ 표현형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Af^θ형은 고온다습한 열대우림 기후대에 적응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글로거(Gloger)의 법칙에 의하여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 중에서 피부가 가장 검은 특성을 나타낸다(지도 1 참조). 이러한 특성은 이들이 동아시아 온대지역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잔존하여,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Af^θ형은 열대우림기후대의 Af^θ형과 달리 익은 오디처럼 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보다 피부가 검은 편이며, 유아기에 몽고반점도 비교적 크고 넓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습한 기후에 적응한 f형질이 표현되어서 Af^θ형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비만형인데, 심장선(ST)이¹²⁾ 강화되어 비교적 활동적인 Af[⊕]형보다도 비활동적인 Af^θ형이

12) 장기선(body meridian)에는 심장선(HT), 소장선(SI), 간선(LR), 쓸개선(GB), 비췌장선(SP), 위장선(ST), 폐선(LU), 대장선(LI), 콩팥선(KI), 방광선(BL),

더 비만이 되기 쉬운 표현형으로 평생 비만관리를 해야 하는 표현형이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몸집이 크고 장대한 인상을 주는 외모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도 1〉 Af^θ 표현형의 발생¹³⁾

다음으로 고개를 치켜들고 뒤로 짓히는 태도가 아니라, 생각에 잠긴 듯 머리를 아래로 숙인 것 같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오금이 펴져 보이나 등이 앞으로 굽은 것은 아니라고(念然下意... 臙然未僂) 하였는데, 이는 Af형 중에서도 추운 기후대로 다시 이동 적응하며 심장선이 강화되어 활동적인 편이고 당당한 Af[⊕]형이 아닌 Af^θ형에 해당되는 특성으로 볼

교감선(GV), 부교감선(CV) 등이 있다.

13) 조기호·조한규, 앞의 책, 90쪽.

수 있다. Af^θ형은 뒤에 언급할 태양지인에 상응하는 Df[⊕]형과 정반대의 장기선편재¹⁴⁾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태양지인의 자세를 “反身折臑”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보면 “臑然未僂”의 의미는 오금이 펴져 보이거나 등이 앞으로 굽은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고개와 상체를 뒤로 젖히면 무릎이 약간 구부러져 오금이 굽혀지는 자세가 무의식적으로 취해지는 반면에, 고개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오금이 펴지는 자세가 몸의 진행방향에 맞추어 진화해온 상하인체관절의 기능특성에 상응하게 자연스럽게 취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일반적으로 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폐선(LU)이 강화되고 가장 큰 장기인 상체의 폐가 발달한 D형질이 아닌, 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폐선(LU)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폐가 취약한 A형질을 지닌 표현형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Af^θ형은 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심장선과 폐선 및 교감선(GV)이 약화되고, 부교감선(CV)이 강화된 특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며, 덥고 습한 열대우림기후대 적응의 심리발달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행동이 느리고 조용하며 말이 적은 편이고 얌전한 태도를 취하며,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세우며 활보하지 않고 움직임이 적고 얼굴을 아래로 향한 듯한 자세로 다소곳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특성이 발견된다.¹⁵⁾

태음지인에 대한 치유법의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治人之五態奈何 少師曰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溢

14) 조기호c, 앞의 논문, 155쪽. “장기선의 강약편재 현상을 포함하여 선택과 집중의 자연적응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대적응형질의 특성은 DNA보다도 RNA 또는 methyl groups에 의한 유전자활성화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조기호a, 앞의 논문, 47쪽 인용).

15) 조기호a, 같은 논문, 부록 59쪽, Af^θ형의 발현 특성 참조: 조기호b, 앞의 논문 180쪽 각주 23) 참조.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不之疾寫 不能移之”. 여기서 “多陰而無陽”이라 하였는데,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 중에서 음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형은 Af^o형이다. Af^o형은 덥고 습한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신체말달부가 차가운 특성이 형성되고 비만하며 특히 하체가 비만하며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습한 특성과 같은 음의 특성이 다른 표현형들에 비하여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음의 부교감선이 강화되어 있으며, 해부학자세에서 발끝에서 손끝과 머리 방향으로 흐르는 음의 간선(LR)과 비취장선(SP)도 강화되어 있다. 그러나 양적 특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해당 기후대 적응과정에서 양의 교감선과 머리와 손끝 방향에서 발끝 방향으로 흐르는 양적 특성을 지닌 대장선(LI), 소장선(SI), 방광선(BL)이 약화되는 특성이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위장선(ST)과 쓸개선(GB)은 강화되어 있다. 그리고 양적 특성이든 음적 특성이든 오로지 어느 한편의 특성만을 전적으로 지니고 있으면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계의 통합진화전개 기본법칙인 순환이 발생하고 유지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多陰而無陽”이라 한 것은 양적 특성이 전무하다기 보다는 오테인 중에서 음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마치 양적 특성이 없는 것처럼 발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음의 특성으로 혈액이 탁하다고 하였는데(其陰血濁), 이는 Af^o 표현형이 덥고 습한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심장선과 폐선이 약화되고 부교감선은 강하게 항진되어, 평소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활동량도 적으며 강한 음적 특성이 발현되는 비만한 표현형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형에 비하여 혈전증이 발생하기 쉽고 율혈성 심혈관질환도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것에 상응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其衛氣滯)는 것은, Af^o 표현형의 특성 중에서 더운 기후에 적응하면서 심장선과 폐선이 일차적으로 약

화되어 신체말단부와 피부의 혈액순환기능이 저하되어 몸이 차갑고 피부가 거친 편이며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특성에 상응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음양이 부조화를 이룬다(陰陽不和)는 것은 Af^o형이 여덟 표현형 중에서 음적 특성이 가장 강하고 양적 특성이 가장 약하여 음양의 편차가 심한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緩筋而厚皮”라고 하였는데, 먼저 근육이 이완되어 보이는 것은 본래 Af^o 표현형이 무더운 열대우림 기후대에서 발달한 조용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특성과 습한 기후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f형질이 표현되어 영양분의 신체비축 특성이 발달하여 비만하지만 근육발달은 약한 특성에 상응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Af^o형이 다시 추운 기후대로 이동하여 적응하면서 심장선이 강화되어 활동적인 Af^o형은 상대적으로 근육질의 체격을 이루는 편이다. 다음으로 피부가 두껍다는 의미는 Af^o형이 덥고 습한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땀구멍도 크며 폐선이 일차적으로 약화되어 피부가 거친 특성에 상응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대표적인 음의 특성을 지닌 Af^o형이 불섭생으로 장기선편제의 편차가¹⁶⁾ 심화되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 당연히 맞춤처방을 실시하면서 더욱 편중 강화되어 탈이 난 음의 장기선에 약화법을 속히 적용하지 않으면 병증제거가 어렵다(不之疾寫 不能移之)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도별 온냉의 온도 적응차이에 따른 길항작용과 인류이동 적응강화에 따른 발생작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면 약화법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치유에서는 약화법보다는 약화된 장기선의 강화법이 우선이기도 하다.¹⁷⁾

16) 편제는 본래 표현형별로 다르게 타고나는 장기선별 강약화차이를 의미하며, 편차는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그 차이의 정도(심화도)를 의미한다(조기호b, 앞의 논문, 179쪽 참조).

17) 조기호b, 같은 논문, 175쪽 각주 16) 인용: “장기선 강화법은 약화된 장기선에 금도금한 선자석(cylinders of ϕ 1.5 x 5mm x 2 NEO-MAG)을 장기선 유주

태음지인이 여타의 오택인과 다른 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其不等者 何得聞乎 少師曰 太陰之人 貧而不仁 下齊湛湛 好內而惡出 心和而不發 不務於時 動而後之 此太陰之人也”. 여기서 “貧而不仁”이라 하였는데, 오택인의 발현특성을 잘 알고 있는 소사가 태음지인은 본래 “탐욕스럽고 어질지 못하다”는 뜻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학에서 인간의 타고난 性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仁을 기본적으로 지니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¹⁸⁾ 그의 端¹⁹⁾인 측은

방향과 N→S방향이 일치되도록, 약화법은 강화된 장기선에 은도금한 선자석을 장기선 유주방향과 S→N방향이 일치되도록 접촉시켜 부착하여 적용할 수 있고, 장기선점 강화법은 해당 장기선의 강약화편재특성에 맞게 금도금한 점자석(cylinders of $\phi 2 \times 1.5\text{mm}$ NEO-MAG)의 S극을 장기선적도 이전의 점에(장기선적도 이후의 장기선점에는 반대의 극), 장기선점 약화법은 은도금한 점자석의 N극을 장기선적도 이전의 점에 부착하여(장기선적도 이후의 장기선점에는 반대의 극)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호c, 앞의 논문, 157쪽과 조기호·조한규, 앞의 책, 112쪽에서 ME의 A16은 hCV8로 수정되었으며, WHO에서 중복 표현한 PC9는 중지끝 중점이 아니라 중지손톱위 2지쪽 하단 모서리에 있고 중지끝 중점은 인체 fractal 구조에 따른 GV20 상응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범측정에서 확인되었다(WHO/WPRO, 표준경혈위치 한글공식판, 2008, 160쪽; 조기호, “Inter-Korean Cooperation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NF Alumni Workshop, “Challenges for Cooperation and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Korea”』, 2012, p.66).

- 18) 기본 性인 仁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의 端인 측은한 마음도 누구에게서나 발현될 수 있는데, 그 발현정도의 차이는 모든 표현형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장기선편재 특성의 편차크기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생적 不仁은 없는 것이며, 다만 장기선편재 특성의 편차심화도에 비례하여 仁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연법칙에 따른 현상이 발현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w^{\oplus} 형과 같은 재변화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운 기후에 적응하여 심장선과 폐선 및 교감선이 발달한 Dw^{\oplus} 형이나 Df^{\oplus} 형과 같은 \oplus 형질이 표현되는 경우보다는 더운 기후에 적응한 \ominus 형질이 표현되는 Af^{\ominus} 형이나 Aw^{\ominus} 형의 경우에 仁의 性이 발현되기 더 용이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있다.
- 19) 조기호b, 앞의 논문, 169쪽 인용: “인간의 원시뇌가 담당하는 性은 본래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의 발생과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법칙(理)에 속하며, 우주자연과 物我一體를 이루는 對自然性을 지닌 공통의 善한 것이다. 그리고 이 心體의 性은, 예를 들어 仁은, 인식하는 환경의 범위 안에서 대상에 대하여, 對人性을 포함

한 마음도 누구에게서나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표현형이 지니고 있는 타고나는 특성을 근거로 不仁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런데 태음지인에 해당되는 Af^θ 표현형의 경우에는, 덥고 습한 기후대 적응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장기선편체의 특성에 따라 위장선, 비취장선, 간선, 쓸개선이 강화되어 소화흡수기능이 발달하고 취하여 저장하는 신체기능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불섭생으로 인하여 장기선편체 특성의 편차가 커졌는데도 이에 맞춘 편차감소의 관리와 예방치유를 하지 않으면,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명체에게서 발현되는 기본속성에 속하는 취하여 저장하려는 본능이 心身不二의 특성으로 강하게 발현될 수 있고, 나누어주는 인자한 정이 약하게 발현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러한 편차증가시의 자연법칙에 따른 편차심화도 발현현상들이 해당 유형에게서 부정적으로 관찰되었을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貧而不仁”이란 바로 이러한 편차증가에 따른 발현현상이 다른 오태인과 비교하여 지적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Af^θ형은 태음지인에서 언급된 내용에 상응하게 일반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며 침착 묵중하고 속이 깊으며(下齊湛),²⁰⁾ 외향

한 對環境性의 端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유하는 친척유전자로 확인이 가능하고 인간으로 분화되기 전 단계부터 존재해온 인간과 동물 사이의 共通共心의 未發의 性이 부상을 당한 동물을 보면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의 端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공유유전자로 확인이 가능하고 동물로 분화되기 전 단계부터 존재해온 인간과 식물 사이의 共通共生의 未發의 性이 가뭄에 시들어가는 식물을 보면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의 端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생명체와 물질계 사이의 지속적인 구성요소의 교환 및 동일하게 작용하는 자연법칙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생명체발생 전 진화단계부터 존재해온 물질과 인간 사이의 共通共存의 未發의 性이 산이 무너진 것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의 端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들이 아직도 석기시대의 적응상태를 유지하는 인체의 진화속도를 추월하여 자가가속 진화되고 있는 인간문명에 취하여 제대로 발현되고 인지되지 못할 뿐이다.”

20) 조기호a, 앞의 논문, 59쪽 부록 Af^θ형 발현 특성 참조; 조기호b, 앞의 논문, 180쪽 각주 23) 참조. Af^θ형이 때로는 음흉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듯 하다고 평

적(extrovert)이지 않고 내향적(introvert)이며(好內而惡出),²¹⁾ 마음이 온화하고 속마음이나 감정을 발현시켜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며(心和而不發), 힘써 적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不務於時), 행동이 늦고 뒤서기를 하는(動而後之) 특성들이 발현된다. 이는 무더운 기후에서는 적게 움직이고 활동량이 적어야 열을 적게 발생시키고 체온조절에 유리하며, 또한 열대우림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심장선과 폐선 및 교감선이 약화되고 부교감선이 강화되어 심폐기능의 활성이 느리며, 부교감선과 함께 비취장선과 위장선이 강화되어 소화흡수기능이 발달하고 습한 기후에 적응한 f형질이라서 비만하며 체구가 크고 몸이 무거운 것 같은 특성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덥고 습한 열대우림기후대의 밀림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생물 자연적응진화과정에서의 심리발달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오태인 중 소음지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하여 소사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열대우림기후대에서는 바람의 방향만 주의하면 근거리
에 인접해 숨어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환경에서 형성된 심리진화
특성이 Af^o형에게 잔존하면서 무의식적 그리고 인지적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되는
신중하고 속이 깊으며 잘 내색을 하지 않는 특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생인류의 직접 조상이 해당 기후대환경에서 생존번식에 절실했던 문
체에 대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야생에 적응한 특성들은 짧은 문명화시대에 사
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전되어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 21) “好內而惡出”은 내 것으로 취하기를 좋아하고 내주기를 싫어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
는데(裴秉哲, 『今釋黃帝內經 靈樞』, 成輔社, 1995, 525쪽 참조), 이러한 특성도
소화흡수기능이 발달하여 취하여 저장하는 신체기능이 발달한 Af^o형에게서, 본래
적응하며 진화했던 기후대지역이 아닌 다른 기후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불섭생으
로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커지는 경우에 해당 장기선 편차 감소 맞춤형관리와 예방
치유를 하지 않으면 발현될 수가 있다. 그리고 “好內而惡出”뿐만 아니라 본고에 인
용된 황제내경의 다른 원문들도 본고에서 이해한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黃帝曰 別五態之人奈何 少師曰 중략 少陰之人 其狀淸然竊然, 固以陰賊, 立而躁嶮, 行而似伏, 此少陰之人也”. 여기서 소음지인에 대하여 맑고 고상하며 요란하게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살그머니 조용조용 행동하며(其狀淸然竊然), 평소 자기 주변에 담을 쌓은 듯한 수세적 행동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내재적 숨은 반기를 드는 행동이 표출될 수 있으며(固以陰賊)²²⁾, 서 있으면 무게 있고 여유 있으며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 않고 조금 불안한 듯 보이고 흠이 없는 산과 같이 살이 적고 마르고 약해 보인다(立而躁嶮)고 하였는데,²³⁾ 이러한 특성들은 덥고 건조한 사바나 기후대의 생존환경에 적응진화하면서 형성된 Aw^θ 표현형의 특성에 가장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²⁴⁾ 또한 행동할 때는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듯 주변을 살피는 듯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한다(行而似伏)고 하였는데, 주인(人) 옆에 있는, 낮은 서열로 인지하고 있는 개(犬)가 주인의 눈치를 살

22) 조기호a, 앞의 논문, 부록 55쪽 참조; 조기호b, 앞의 논문, 178쪽 참조. Aw^θ형은 평소 차분하고 얌전하지만, 조용하다가 말미에 정곡을 찌르는 말을 쏟아부리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얌전하고 방어적이지만 참고 감정표현을 자제하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교감선이 항진되고 그 임계점을 넘으면 진화과정에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투쟁-방어-도주-반응이 표출되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의외의 매우 강한(누적정도가 심하면 위협한) 반발행위가 발현될 수 있다 (여기서 陰賊이란 의미는 평소 숨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게 드러내놓고 강하게 반응을 나타내어 겉으로 잘 노출되는 陽賊에 비유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행위의 발현은, 덥고 건조한 savannah기후대에 적응하며 형성된, 항상 노출을 삼가고 주변을 살피며 감정표현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했던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 그때그때 감정표현을 하여 발산시키지 않은 비상사태(공격-방어-도주) 대응 준비 증상이 누적 가중되다가 드디어 인체반응으로 발현 표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현상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savannah 기후대와 같이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체격 조건과 같은 마른 체격이 습하고 비만한 체격보다 적응진화하기에 더 유리하고, 사냥동물을 쫓는 오래달리기에 더 유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4) 조기호a, 앞의 논문, 47쪽 부록, Aw^θ형의 발현 특성 참조; 조기호b, 앞의 논문, 173쪽 각주 15) 참조.

피는 것과 유사한 행위는, 인류 진화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안전한 나무숲에서 내려와 직립한 후에 그리고 사바나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숨고 도망갈 곳이 마땅하지 않고 항상 맹수를 경계하며 주변을 살펴야만 했던 위험한 생존환경에서 형성된 특성으로 호모사피엔스의 원조 표현형인 Aw^θ형에게 잔존하면서 무의식적 그리고 인지적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된다고 볼 수 있다.²⁵⁾

소음지인에 대한 치유법의 차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治人之五態奈何 少師曰 中략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而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 여기서 “多陰少陽”이라고 한 것은 “多陰而無陽”이라고 했던 태음지인보다는 그래도 양적인 특성이 조금은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Aw^θ형도 조용하고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Af^θ형과 비교한다면 부교감선이 덜 강화되고 교감선도 덜 약화된 편이며 폐선도 덜 약화된 장기선편재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²⁶⁾ Af^θ형보다는 그래도 활발한 편이다. 또한 Aw^θ형은 뒤에 언급할 “多陽少陰”의 특성을 지닌 Dw^θ형과는 정반대의 장기선편재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小胃而大腸”의 특성 중에서 “小胃”라는 특성은 Aw^θ형의 장기선강약화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Aw형은 위장선과 비취장선이 일차적으로 약화된 특성을 지녔는데, θ형질이 유전된 Aw^θ형은 그 중에서도 양의 장기선인 위장선이 음의 장기선인 비취장선

25) 조기호b, 앞의 논문, 173쪽 각주 15) 참조. savannah 기후대에서는, 열대우림 기후대와 같이 우거진 나무숲이 없어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항상 맹수들을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사전에 충분히 살펴 행동해야만 생존에 유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진화심리 발달특성 때문에 때로는 주변을 살피고 가끔씩 앞이나 뒤를 돌아보는 습성이 Aw^θ형에게서 잔존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26) 조기호b, 앞의 논문, 174쪽 그림 1; 조기호a, 앞의 논문, 47쪽 참조.

보다도 더 약화되어 가장 취약한 장기도 위장이고 평소에도 위장과 관련된 질환에 가장 많이 시달리며 위장이 편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데 함께 설명한 “大腸”의 의미는 위장에서 대장까지의 소화흡수기관이 모두 튼튼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편집인쇄과정에서 “大臟”이 “大腸”으로 오기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Aw^{\ominus} 형의 특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장선보다는 약화정도가 덜하지만 대장선(LI)과 소장선도 약화된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앞서 “多陰少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六臟六腑”에서 음의“臟”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양의“腑”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에 언급되는“六腑不調”라는 설명과도 문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각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별로 특화된 장기선편재의 특성으로 보아 사실은 모든 표현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 “六腑不調”와 관련하여 양의 장기선 특성을 Aw^{\ominus} 형에서 살펴보면, Aw^{\ominus} 형은 양명에 해당되는 위장선이 일차적으로 대장선이 이차적으로 약화되었고, 태양에 해당되는 방광선(BL)이 일차적으로 강화된 특성(其陽明脈小而太陽脈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음에 해당되며 \ominus 와 \oplus 의 형질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선과 함께 태양에 해당되는 소장선의 경우에는 Aw^{\oplus} 형은 강화되었으나 Aw^{\ominus} 형은 약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양에 해당되는 쓸개선은 이차적으로 강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덥고 건조한 기후대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집중의 진화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장기선편재 특성들은 필히 잘 살펴서 조절하여야 한다(必審調之). 그리고 소음지인은 혈이 빠져나가기 쉽고 기가 손상되기도 쉽다(其血易脫 其氣易敗也)고 하였는데, Aw^{\ominus} 형도 일반적으로 혈기(血氣)가 왕성하지 못하며 나약하고 혈기부족한 편이라,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증가하여 병약한 상태가 되기도 쉬워서 평소에 몸을 사리고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소음지인이 여타의 오태인과 다른 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其不等者 何得聞乎 少師曰 中략 少陰之人 小貪而賊心 見人有亡 常若有得 好傷好害 見人有榮 乃反慍怒 心疾而無恩 此少陰之人也”. 여기서 소음지인의 정신적·사회적 특성을, 장기선편재특성의 편차가 커진 상황에서²⁷⁾ 비정상적으로 편중 발생되어 부정적으로 관찰되기 쉬운 상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은 일에 집착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상처받아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고(小貪而賊心), 경쟁자가 잘 못 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얻은 것 같은(見人有亡 常若有得) 기분이 들 수 있어서, 남이 상처받고 손해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好傷好害),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見人有榮) 오히려 은근히 화가 나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어서(乃反慍怒), 시기하는 나쁜 마음이 있고 인정 어린 마음이 없는(心疾而無恩)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특성들이 소음지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들도 덩고 건조한 사바나 기후대의 생존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장기선편재 특성을 지닌 Aw⁰형이, 본래 적응하면서 진화했던 기후대가 아닌 다른 기후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불섭생으로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에, 불선(不善)²⁸⁾이 될 수도 있는 부작용으로 발견될 수 있는 특성과 관

27)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로 보면, 理發氣隨로 형성된 장기선편재특성의 편차가 氣發理乘의 범칙 아래 표현 形質理가 乘한 상태에서 변화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8) 조기호b, 앞의 논문, 176쪽 참조. 인용: “不善은, 대인관계가 포함된 對環境 관계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단축키와 같은 역할수행을 위하여 신뇌 신경질이 발달한 후에도 여전히 원시뇌 뇌간과 연계된 구뇌 변연계에서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발생하도록 진화되어온 個人性의 情이, 理發氣隨의 形質理發臟器線隨에 의하여 형성되어 遺傳되는 性으로 물려받은 臟器線偏在特性을 기본으로 하여, 氣發理乘의 臟器線發形質理乘에 따라 잉태부터 시작되는 環境에서 변화되는 臟器線偏在의 偏差 深化度에 준하여, 사회적 대인성이 포함된 公同의 環境性보다 個人性에 편중되어

런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무의식적 그리고 인지적 무의식적 사회심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기후대적응형질의 표현형들에게서도 편차심화도에 따라 부작용의 감정(情)으로 발현될 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리생활을 하는 초식동물들도 육식 맹수에게 쫓기는 경우 맹수에게 잡히는 희생자가 발생하면 안타깝지만 불안한 추적이 멈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유사한 진화시대 사회생물학적 경험의 진화심리와 인식의 원형이 나무숲에서 내려온 후 그리고 맹수들이 동존하는 사바나 기후대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현생인류의 사회생활에서도 무의식적 그리고 인지적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공통 잠재심리로 미약하나마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태인 중 태양지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하여 소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黃帝曰 別五態之人奈何 少師曰 중략 太陽之人 其狀軒軒儲儲 反身折脛 此太陽之人也”. 여기서 태양지인은 풍체가 크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지녔으며(其狀軒軒儲儲), 윗몸을 뒤로 젖히고 오금은 굽은 듯한(反身折脛) 자세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의 특성 중에서 Df[Ⓣ]형의 외관상 특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f[Ⓣ]형은 춥고 습한 냉한대기후대에 적응하면서 폐가 가장 발달하고 지방을 비축하며 베르그만의 법칙에 비추어보아 체형이 크게 발달하는 편인데, 특히 상체가 매우 발달하는 반면에 하체는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자연스럽게 서 있어도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인 폐가 발달하여 다른 표현형에 비해 마치 숨을 크게 들이마셔 폐가 커진 것 같은 큰 상체가 뒤로 젖힌 듯이 보이고 부실한 다리는 마치 오금을 약간 구부린 것 같은 자세로 보일 수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鬩然未僕”라고

발현되는 경우에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표현한 태음지인에 상응하는 Af[⊖]형과는 정반대의 장기선편재 특성을 지닌 Df[⊕]형에 상응하는 태양지인은 “臲然未僂”한 특성과 반대로 “反身折矐”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폐가 발달한 표현형에게서 나타나지만, 폐가 약한 다른 표현형도 폐로 크게 호흡하는 동작으로 숨을 크게 들며 마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슴을 펴고 고개와 상체를 뒤로 젖히면 무의식적으로 무릎이 약간 앞으로 굽혀지면서 오금 은 뒤로 굽혀지는 듯한 자세가 몸의 진행방향에 맞게 진화된 상하인체관절의 기능특성에 상응하게 자연스럽게 취해진다.

태양지인에 대한 치유법의 차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治人之五態奈何 少師曰 中략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必謹調之 無脫其陰 而寫其陽 陽重脫者易狂 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 여기서 “多陽而少陰”이라는 문구는 “多陽而無陰”이라는 표현이 후대의 편집인쇄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소양지인과 똑같이 “多陽而少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고,²⁹⁾ 태음지인에서 “多陰而無陽”이라고 했던 표현에 반비례적으로 “多陽而無陰”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전체 문맥상 더 자연스럽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앞서 살펴본 태음지인과는 반대로 “多陽而無陰”이라고 양적 특성이 가장 강하다고 강조되었다면, 태양지인은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 중에서 가장 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장기선편재 특성에 따라 교감선과 심장선 및 폐선이 가장 강화되어 양적인 특성이 제일 강하게 발현되는 Df[⊕]형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양특성 차이가 매우 크므로 그 특성을 당

29) 뒤에 언급되는 少陽之인의 치유 특성(多陽少陰) 참조.

30) 전후문맥의 내용비교논리를 떠나 특성으로 보면 사실은 太陽之人도 음적 특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 음적 특성이 가장 적다 또는 少陽之人보다도 더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연히 조심스럽게 조절하여(必謹調之), 매우 취약한 음의 기운이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無脫其陰), 너무 강화된 양의 기운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옳다(而寫其陽). 그렇다고 양기를 너무 약화시켜 양기가 너무 많이 이탈되면 정신이상이 발생하기 쉽고(陽重脫者易狂),³¹⁾ 또 잘못 조절하여 음양의 기운이 함께 이탈된다면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인사불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 이러한 전통 처방의 설명도 Df⁺형에게 가장 유사하게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Df⁺형은 춥고 습한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장기선편채특성에 유의하여, 특히 본래 적응하면서 진화했던 기후대가 아닌 온난 기후대에서, 불섭생으로 발생한 편차의 심화정도에 적합하게, 기후대적응형질특성 맞춤 관리와 예방치유를 하지 않으면 강건해 보이는 외양상의 체구에 걸맞지 않게 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태양지인이 여타의 오태인과 다른 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其不等者 何得聞乎 少師曰 中략 太陽之人 居處于于 好言大事 無能而虛說 志發于四野 舉措不顧是非 爲事如常自用 事雖敗 而常無悔 此太陽之人也”. 여기서 머물고 사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가 고정되거나 억매이지 않고 활동범위가 넓고 크며(居處于于), 큰 일을 논하기 좋아하고(好言大事), 능력이 안 되는 일에도 큰 소리 치기 쉬우며(無能而虛說), 품은 뜻을 세상에 널리 펴고 싶어 하며(志發于四野), 일을 처리하고 조치하는 행위에 있어서 속 좁게 사사로이 시비를 가리지는 않으며(舉措不顧是非), 업무수행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언제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31) 전후문맥상의 논리로 보면 “陽重脫者易狂”이 아니라 “陰重脫者易狂”이 후대에 오기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치료를 잘 못 하여 그나마 부족한 음기마저 심하게 이탈되면 극도로 강화된 양적 기운이 전적으로 표출되어 광적 정신이상이 발생하기 쉽다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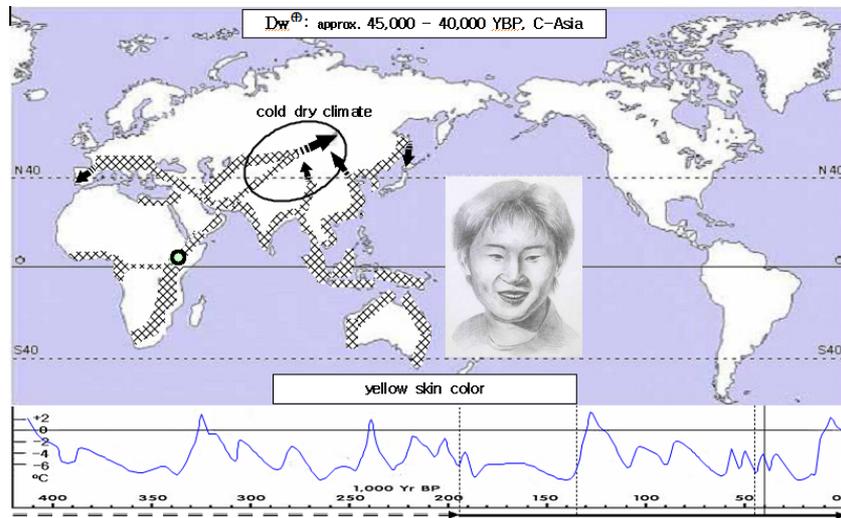
추진하기 쉽고(爲事如常自用), 일이 비록 잘못되어 실패를 하더라도 맘에 두고 자책하지는 않는 편이라고(事雖敗而常無悔)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들도, 가장 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표현형이라서 평소 심폐기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활달하며, 광활한 냉한대 빙평원지대의 생존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굴강하고 진취적이며 대범한 성향을 지닌 Dw⁺ 표현형에게서 발현되는 특성에 가장 유사하게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도 적응하며 진화한 춥고 습한 기후대와 다른 기후 특성을 지닌 기후대 지역에서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증가되는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발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오태인 중 소양지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하여 소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黃帝曰 別五態之人奈何 (중략) 少師曰 少陽之人 其狀立則好仰 行則好搖 其兩臂兩肘則常出於背 此少陽之人也”. 여기서 서 있을 때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위로 치켜들기 좋아하고(其狀立則好仰), 걸을 때는 얌전히 걷지 않고 활발하게 흔들며 걸으며(行則好搖), 두 팔과 팔꿈치는 가지런히 앞으로 모으지 않고 등 뒤쪽으로 내미는 듯 하는(其兩臂兩肘則常出於背)³²⁾ 자세의 특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춥고 건조한 냉대기후대의 맹수가 거의 없어 거칠 것 없는 넓은 초원에서 역동적으로 수렵생활을 하며 조악한 생태환경에 적응하면서 삶을 영위해온 Dw⁺ 표현형에게서 발현되는 쾌활하고 강인하며 항상 자신 있어 하는 특성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³³⁾ Dw⁺형은 춥고 건조한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32) 조심하며 얌전하고 겸허한 자세가 아니라 자신 있어 하고 외향적이며 대가 세고 빠기는 듯한 자세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3) 만약에 savannah 초원이나 열대우림 기후대에서 조심하지 않고 少師의 설명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생존하여 유전자를 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savannah 기후대에 적응한 형질이 표현되어 Dw⁺형과는 정반대의 장기선편재 특성을 지닌 Aw⁺형은 여기에 언급한 특성과 정반대의 특성이 발현된다(少陰之人 구별 특성

심장선과 폐선이 강화되어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며, 심장선과 폐선이 강화되었으나 f형질이 표현되어 육중한 Df⁺형보다 w형질이 표현된 Dw⁺형이 보행도 가볍고 경쾌한 특성이 발현된다.



〈지도 2〉 Dw⁺ 표현형의 발생³⁴⁾

소양지인에 대한 치유법의 차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治人之五態奈何 少師曰 中략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外 實陰而虛陽 獨寫其絡脈 則强氣脫而疾 中氣不足 病不起也”. 여기서 “多陽少陰”의 특성은 소음지인에서 언급된 “多陰少陽”과 비교하여 정 반대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Dw⁺형은 앞서 설명한 Aw⁺형과 비교하여 정반대의 장기선편재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발현되는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참조).

34) 조기호·조한규, 앞의 책, 92쪽.

특성도 일반적으로 정반대이며, 심장선이 일차적으로 강화되고 폐선이 이차적으로 강화되어 심폐기능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심장선 뿐만 아니라 폐선도 일차적으로 강화된 Dw^④형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표현형에 비하여 활발한 양의 특성이 발현된다. 그리고 속(裏)에 있는 음의 경맥은 약하고 겉(表)에 있는 양의 낙맥은 강하다고 하였는데(經小而絡大), 기후적응에 따른 장기선편재의 특성을 살펴보지 않고 경맥낙맥 대소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음의 혈은 안에 있고 양의 기는 밖에 있으므로(血在中而氣外),³⁵⁾ 속(裏)에 있는 부족한 음을 강화시켜주고 겉(表)에 있는 강한 양을 누그러뜨려주어야 하는데(實陰而虛陽), 만약에 통상의 절차대로 기를 혈보다 먼저 조절하기 위하여³⁶⁾ 부족한 것을 강화시켜주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강한 것을 약화시켜주는 방법을 선호하여 피부표면 쪽 겉으로 떠 있는³⁷⁾ 양의 낙맥만을 약화시켜주면(獨寫其絡脈), 겉(表)에 있는 강한 양기가 빠져나가 질병을 얻을 수 있고(則強氣脫而疾), 속(裏)의 약한 음기가 부족하여(中氣不足) 병이 치유되기 어렵다(病不起)고 볼 수는 있다. 이러한 특성도 Dw^④ 표현형에게만 해당되는 전형적 차별 맞춤치유법의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추운 기후대에 적응한 특성에 의하여 신체말단부와 겉이 덮고 속은 비교적 차다고 느낄 수 있는 Dw^④형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치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소양지인이 여타의 오태인과 다른 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其不等者 何得聞乎 少師曰 中략 少陽之人 謔諱好自貴 有小官則高自宜 好爲外交而不內附 此少陽之人也”. 여기서 잘못된 것을 살피고

35) “氣爲衛衛於外”, “血爲氣配” (허준 엮음, 동의과학연구소 역, 앞의 책, 284쪽, 514쪽 인용).

36) “調氣爲上調血次之” (허준 엮음, 동의과학연구소 역, 앞의 책, 514쪽 인용).

37) “諸脈之浮而常見者皆絡脈也” (洪元植, 앞의 책, 원문부록 25쪽 인용).

바로잡기 좋아하며 스스로 귀하다고 잘난 척하기 쉽고(謏諱好自貴), 보잘 것 없는 직위를 맡아도 자신이 마땅히 옳다고 뽑내기 쉬우며(有小小官則高自宜), 밖에서 사람들과 사귀며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집안에 머물며 가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好爲外交而不內附)³⁸⁾ 특성들도 냉대 건조기후대의 넓은 초원에서 정착하지 않고 이동식 수렵활동의 삶을 영위하면서 적응 진화해온 Dw⁺ 표현형의 심리발달과정에서 형성된 정신적·사회적 특성이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발현될 수 있는 경우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오태인 중 음양화평지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해서 소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黃帝曰 別五態之人奈何 少師曰 (중략) 陰陽和平之人 其狀委委然 隨隨然 顯顯然 愉愉然 皦皦然 豆豆然 衆人皆曰君子 此陰陽和平之人也”. 여기서 의젓하고 품위 있으며(委委然),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며(隨隨然), 단정하고 정중하며(顯顯然),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듯 근심이 없는 것 같고(愉愉然), 눈매가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아름다우며(皦皦然), 의연하고 의젓하여(豆豆然)³⁹⁾ 사람들이 다들 군자라고 한다(衆人皆曰君子)고 설명한 특성들은, 부교감선이 강화된 변형 표현형인 Aw⁺형의 특성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⁴⁰⁾ 역시 부교감선이 강화된 Af⁺형도 이와 유사한 특성들이 발현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태음지인의 특성이 Af⁺형의 특성에 가장 유사했고, Af⁺형이 본래 적응했

38) Dw⁺ 표현형은 냉대건조기후대에 적응 진화하면서 형성된 특성에 의하여, 집안에 진득하니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돌며 남의 일은 잘 도와주면서도 집안일과 식구들은 오히려 소홀히 하고 가정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정신적·사회적 특성이 발현되기 쉽다(조기호a, 앞의 논문, 56쪽 참조).

39) 엄숙한 의례를 행하는 제단에 올려진 제기의 자태에서 느끼는 품위를 연상하며 “豆豆然”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40) 조기호a, 앞의 논문, 47쪽 부록, Aw⁺형의 발현 특성 참조.

던 기후와 다른 기후지역에서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커졌을 경우에 발견되는 단점들을 고려하면, 소사의 설명은 부교감선이 강화된 두 표현형 중에서 기본 표현형인 Af⁰형 보다는 변형 표현형인 Aw⁺형의 특성에 더 가깝고(각주 43) 참조), Aw⁺형의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특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음양화평지인이 여타의 오태인과 다른 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其不等者 何得聞乎 少師曰 (중략) 陰陽和平之人 居處安靜 無爲懼懼 無爲欣欣 婉然從物 或與不爭 與時變化 尊則謙謙 譚而不治是謂至治”. 여기서 머물고 사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가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이며(居處安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안절부절 두려워하지 않고(無爲懼懼) 기쁘다고 들떠서 가볍게 희희낙락거리지도 않으며(無爲欣欣), 점잖고 유순하여 자연법칙에 의한 천지자연변화의 흐름에 따르며(婉然從物)⁴¹⁾, 어떠한 경우에도 다투지 않고(或與不爭), 시세변화에 맞게 함께하며(與時變化),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겸손겸허하고(尊則謙謙), 설득을하려 하지 인위적으로 다스리려 하지 않아 일컬어 말하는 자연스런 관리에 이르게 한다(譚而不治是謂至治)고 설명한 소사의 답변내용도 부교감선이 강화된 변형 표현형인 Aw⁺형에게서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특성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음양화평지인에 대한 치유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黃帝曰 治人之五態奈何 少師曰 中략 陰陽和平之人 其陰陽之氣和 血脈調 謹診其陰陽 視其邪正 安容儀 審有餘不足 盛則寫之虛則補之 不盛不虛以經取之 此所以調陰陽 別五態之人者也”. 여기서 소사는 먼저 음양화평지인은 음양의 기가 조화를 이루고 혈액도 순조롭다고 설명하였다(其陰陽之氣和 血脈調).

41) 여기서 物은 인간사회를 포함한 自然(광의로는 박빙(太極) 이후 우주생성 전개진화과정을 의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기후대적응형질의 특성으로 고찰해보면,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은 각각 해당 기후대환경에 적응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화된 고유의 12장기선 강약편재 특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표현형이 다른 표현형보다 혈맥이 더 순조롭게 태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⁴²⁾ 다만 θ 형질에서 \oplus 형질로 그리고 \oplus 형질에서 θ 형질로 변형된 표현형인 Aw^{\oplus} 형, Af^{\oplus} 형, Dw^{θ} 형, Df^{θ} 형이 본래의 적응특성이 다시 한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바뀌어 일종의 재변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변화 전 본래의 편재특성이 약간 중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⁴³⁾

예를 들어, Aw^{\oplus} 표현형은 추운 기후대로 이동하여 적응하면서 심장선이 강화되어 θ 형질에서 \oplus 형질로 바뀐 특성이 발현되기 때문에,⁴⁴⁾ 원조 Aw^{θ} 형의 비교적 강한 음의 특성(多陰少陽)에 부족한 양의 특성이 가

42) 음양의 장기선이 조화를 이루고 순조롭게 순행하는 것은, 누구나 타고나는 기후대적응진화의 산물인 장기선편재의 특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후천 섭생환경의 영향으로 어떻게 증감 변화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맞춤예방관리로 편재의 편차가 감소될수록 심신이 건강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불섭생으로 편재의 편차가 심화될수록(본래 적응했던 기후대가 아닌 기후대에서 발생하기 쉽다) 부조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편재편차를 진단하고 편차감소 조절을 하여야 심신병증을 예방관리 및 치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3) 변형 표현형들은, 주로 θ 형질에서 \oplus 형질로 또는 그 반대로 \oplus 형질에서 θ 형질로 변화되면서 심장선이 강화 또는 약화되어, 기본표현형들이 본래의 해당 기후대적응과정에서 심장선과 폐선이 함께 강화되거나 함께 약화되었던 특성이 심장선과 폐선이 각각 반대로 상이하게 강화 또는 약화되는 특성으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변화전의 심폐기능 동반향진이나 동반저하 현상이 다소 차별적으로 완화되어 중화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정신적, 사회적 특성도 그에 맞게 함께 중화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44) Aw^{\oplus} 형은, 호모사피엔스의 원조 표현형으로 아프리카 사바나의 덥고 건조한 기후대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적합하도록 진화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이 형성된 Aw^{θ} 형이 빙하기에 고위도 추운 기후대로 이동하여 적응하면서 변화된 표현형이다(조기호·조한규, 앞의 책, 91쪽 참조).

미되어 양의 위장선이 Aw^{\ominus} 형보다는 취약하지 않고 더불어 부교감선이 강화되어, Aw 형이 장기선편재 특성에 따라 공통적으로 지닌 가장 취약한 소화기능도 Aw^{\ominus} 형보다는 좋은 편이고 위장문제로 고생하는 경우도 Aw^{\ominus} 형보다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한 Aw^{\oplus} 표현형은 심장선이 강화된 양의 \oplus 형질 특성을 지녔지만, 원래는 더운 기후대에 적응했었기 때문에 폐선은 이차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음의 부교감선은 강화되고 양의 교감선이 약화되어 심폐기능의 과도한 항진발현도 잘 일어나지 않으며, 본래의 음의 특성과 변화된 양의 특성이 상보되어 \oplus 형질 표현형들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의 특성이 발현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음양화평지인의 정신적·사회적 특성들과 비교해보면 음양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고 안정된 특성을 지닌 표현형에 가장 근접하는 표현형은 변형 표현형 중에서도 Aw^{\oplus} 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그리고 소사는 그 음양의 상태를 신중히 진단하고(謹診其陰陽), 사기와 정기를 살펴며(視其邪正), 용태가 편안한지 아닌지 살펴보고(安容儀), 각 장기선을 순행하는 기가 여유 있게 강화되었는지 부족하게 약화되었는지 그 편재의 편차를 살펴서(審有餘不足), 강화되어 너무 성하면 누그러뜨리고 약화되어 허약하면 보강하며(盛則寫之虛則補之), 성하지도 허약하지도 않으면 타고난 본래의 장기선 편재특성을 살펴 그 조건에 맞게 맞춤치유를 해야 하는데(不盛不虛以經取之), 이것이 바로 음양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이며(此所以調陰陽), 오태인을 구별하는(別五態之人者也)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들은 물론 앞서 언급된 음양화평지인의 특성에 가장 근접하는 Aw^{\oplus} 형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형의 진단과 치유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에 해당된다고

45) 조기호a, 앞의 논문, 47쪽 부록, Aw^{\oplus} 형의 발현 특성 참조.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음양화평지인의 치유법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사는 음양화평지인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음양·성쇠·허실을 살펴서 치유를 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 유형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사의 설명에서 음양화평지인도 오태인의 한 유형으로 다른 네 유형과 비교하여 형태, 근골, 기혈이 다르다고(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 하였기 때문에, 치유도 그 다른 특성들에 맞게 다르게 행하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형태와 근골이 다르다는 것은, 인류기후대적응론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앨런의 법칙, 베르그만의 법칙, 글로거의 법칙과 같은 기후환경 적응법칙에 비유하여 설명될 수 있는, 항온포유류에 속하는 인류의 외형적 신체특성이 적응한 기후대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해당 기후대에 적응하는 진화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표현형별로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장기선편재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전고에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⁴⁶⁾

Ⅲ.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學說의 觀點에서 본 陰陽和平之人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음양화평지인에 가장 근접 상응하는 표현형은 Aw⁺형이므로, 이 Aw⁺형의 특성을 기준으로 전고에서 살펴본 李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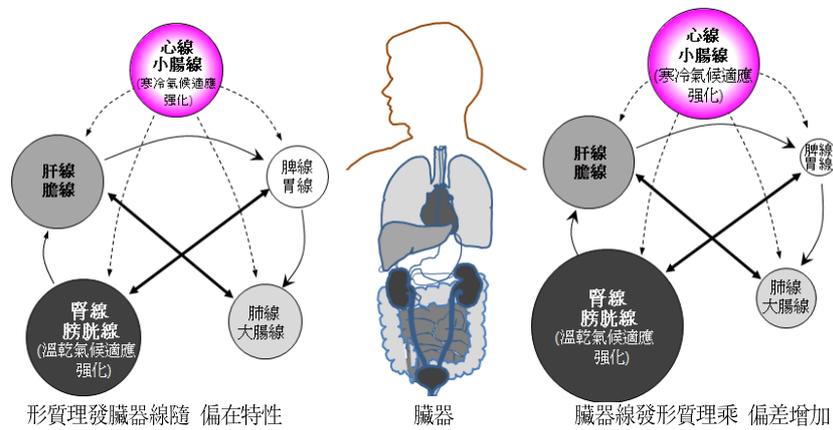
46) 조기호a, 앞의 논문, 29-66쪽; 조기호b, 앞의 논문, 165-198쪽; 조기호c, 앞의 논문, 149-163쪽; 조기호·조한규, 앞의 책, 83-97쪽.

理發氣隨氣發理乘學說의 觀點에서 음양화평지인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w^{\oplus} 형은 Aw^{\ominus} 형이 추운 기후대로 이동하여 적응하면서 변화된 표현형이기 때문에, Aw^{\ominus} 형의 장기선편재 특성에서 심장선이 강화된 변화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多陰少陽”의 특성에 부족한 陽의 특성이 보강되어 일반적으로 음양조화를 이루는 특성이 발현된다. Aw^{\oplus} 형의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性發爲情⁴⁸⁾의 관점에서 보면, 심장선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본래 폐선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심장선과 폐선이 함께 강화되어 심폐기능의 활성화가 빠르고 활발하며 외향적인 D^{\oplus} 형질 표현형의 특성과 같은 多陽의 특성이 발휘되지도 않고, 더운 기후대의 적응과정에서 심장선과 폐선이 함께 약화되어 심폐기능의 활성화가 느리고 小心하며 소극적인 A^{\ominus} 형질의 표현형과 같이 多陰의 특성이 발휘되지도 않으며, 陰과 陽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는 특성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교감선이 강화되고 교감선이 약화되어 일반적으로는 침착하고 온화한 특성이 발현되고, 비취장선과 위장선이 약화된 특성을 타고나지만 부교감선과 심장선이 강화되어 소화기능이 Aw^{\ominus} 형처럼 취약하지도 않으나, 그러한 Aw^{\oplus} 형이라고 할지라도 장기선편재특성은 타고나기 때문에, 불섭생으로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심화되면 다른 표현형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그림 1, 2 참조). Aw^{\oplus} 형도 Aw 형질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비취장선과 위장선이 약화되어 Aw^{\ominus} 형보다는 덜하지만 脾胃가 약

47)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學說의 觀點에서 陰陽和平之人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理發氣隨氣發理乘學說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전고에서 이미 논의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재언급을 생략한다(조기호b,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學說의 理解와 應用』, 『退溪學과 儒敎文化』 49호, 2011, 165-198쪽).

48) “性卽理也何以不謂 之理而謂之性蓋理是泛言天地間人物公共之理性是在我之理”(陳淳 著, 김영민 역, 『북계자의』, 예문서원, 2001, 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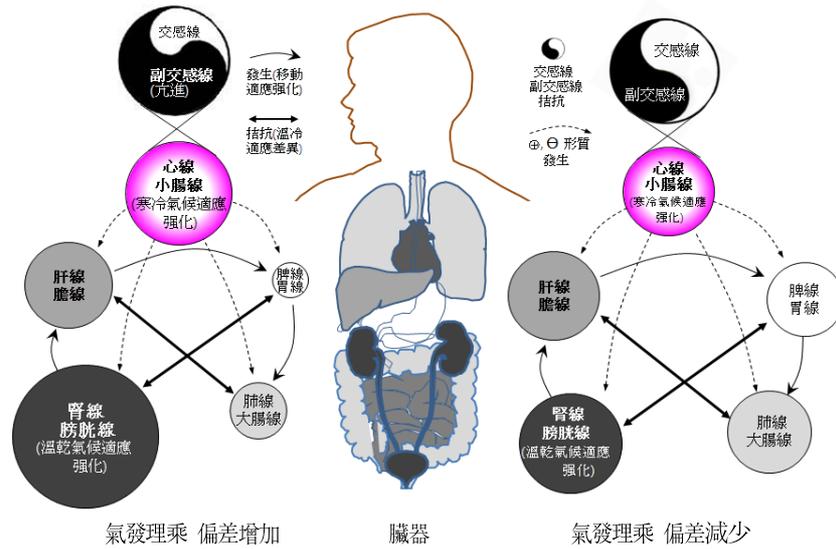
한 정신적·사회적 특성이 발현되며,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심화되면 먼저 채장과 비장 및 위장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 부교감선의 항진까지 심화되면 우울한 증상도 발현될 수가 있다(그림 2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본래 적응했던 추운 기후대나 계절이 아닌 더운 기후대나 계절에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이를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49)



〈그림 1〉 Aw⁺ 표현형의 理發氣隨 편재특성과 氣發理乘 편차특성50)

49)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은 性理學을 한반도 문화품속에서 승급향상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설이다. 그리고 이하의 내용은 조기호b, 앞의 논문을 참고하여, Aw⁺ 형을 사례로 살펴본 것이다.

50) 조기호·조한규, 앞의 책, 166쪽 수정보완.



〈그림 2〉 Aw⁺ 표현형 形質理가 乘한 상태에서의 偏差增減

빅뱅(太極) 이후 우주진개의 법칙(理)이 발현하여 우주구성 기본재료(氣)⁵¹⁾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은 理發氣隨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인간의 심신특성도 우주진화전개 과정에서 자연진화원리(理)가 발현(發)하고 인체(氣)가 이에 따르면서(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별로 다르게 발현되는 심신특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理發氣隨(形質理發臟器線隨)⁵²⁾의 원리에 의한

51) “氣(material)는 理(principle)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리고 理의 존재표현 재료로서의 성질은 $E=mc^2$ 의 관계로 이해 할 수 있다”(조기호b, 앞의 논문, 173쪽, 인용). 그리고 氣는 광의의 의미로는 matter뿐만 아니라 팽창비례 상보존재의 dark energy와 dark matter를 포함한다.

52) 여기서 理는 본래 기후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장부선편재특성을 형성하는 形質理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동적응강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장부선강약화변화와 온냉적응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길항관계(예를 들어 폐선/대장선은 간선/쓸개선

자연적응과정에서의 심리진화와 장기선편재 특성의 형성이 해당 기후대의 각기 다른 기후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장기선편재의 그 편차가 후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불섭생으로 심화되는 경우에 무작위로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氣發理乘 원리에 의하여 표현 形質理가 제어(乘)하는 영향범위 안에서 편차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Aw[Ⓣ] 표현형의 경우 취약하게 타고나는 비취장선과 위장선이 더 약화되고 강화된 부교감선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비취장선과 위장선 관련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장기선 관련 문제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더욱 항진되는 부교감선과 함께 우울한 증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시 氣發理乘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 形質理의 특성에 맞게 그 편재의 편차를 줄여주는 맞춤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약화된 비취장선과 위장선의 강화법과 강화된 부교감선의 약화법을 실시해줄 수 있다(각주 17), 그림 2 참조). 그러나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은 각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심화되기 전에 모든 장기선의 편재편차정도를 살펴 증가되는 편차를 표현 形質理 특성에 맞추어 氣發理乘의 원리로 사전 조절하여 맞춤예방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不善으로 진행될 수 있는 情의 발현을 예방하고 타고난 본래의 性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그 기초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과 그리고 비취장선/위장선은 콩팥선/방광선과 음의 상관관계를 형성한다)와 같은 원리가 포함이 된다(그림 2.3 참조; Browning JD, Szczepaniak LS, Dobbins R, et al. Prevalence of hepatic steatosis in an urb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mpact of ethnicity. *Hepatology* 40(6), 2004, pp.1387-95. Kumar R, et al., Genetic Ancestry in Lung-Function Prediction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3(4), 2010, pp.321-330). 그리고 해당 기후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장부선편재특성은 다시 각 표현형들의 발현특성의 차이를 결정하는 표현 形質의 稜로 작용한다.

수 있다.⁵³⁾ 그리고 이것이 소사가 황제내경 통천편에서 호의적으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양상의 음양화평지인의 특성이 발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림 2 참조), 이황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척도로, 李師朱堂과 崔漢綺의 기후적응인간관이 발전된 인류기후대적응론을 적용하여, 인간의 심신과 그들의 사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53) 조기호b, 앞의 논문, 172쪽, 192쪽,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전된 기본틀인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별 장기선상호관계의 편차특성(形質理)은 未發의 心體에 해당되고, 이 心體의 기본틀 안(乘)에서 환경의 영향으로 氣發理乘의 원리에 의한 편차가 발생하여 已發의 心用이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臟器線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면 신뇌 대뇌피질의 이성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不善이 될 수 있는, 心用의 情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臟器線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不善이 발현되지 않도록,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理인 形質理에 맞게 氣發理乘의 臟器線形質理乘 원리를 적용하여 그 편차를 감소시키는 조절을 함으로써, 臟器線氣가 특정 臟器線에 치우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無過不及) 平常의 상태로 발현되도록 유도하여, 臟器線이 理法에 맞게 운용되고 善한 선천의 情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四端은, 인류기후대적응론의 관점에서 보면, 形質理인 臟器線偏在의 편차가 감소된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으로 그의 근원은 진화 역순으로 공유하는 공통분모의 本然之性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분모의 性은 진화공동조상의 후손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것으로, 인간에게도 오랜 심리진화과정에서 형성되어 밈(meme)에 비유되듯 유전되는 진화유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지닌 모성애나 측은한 마음은 포유동물들에게서도 공통분모의 성격으로 발현되어 개나 늑대가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거처로 옮겨 수유하며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性은 생명체 진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인간 진화 전 단계에서부터 존재했던 진화공동분모의 정신적·사회적 진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性(性即理)은 빅뱅(太極) 우주전개의 근본원리(理)에서 출발한 것이며, 빅뱅으로 발생한 우주의 구성물질(氣)과 동일한 미시세계의 기본물질로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그 구성물질을 자연계와 교환하고 있는 인체(氣)가 그 理에 따르면(예를 들어, 理發氣隨로 발생한 形質理에 맞게 氣發理乘으로 偏差減少) 不善의 부작용 발현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七情은 臟器線偏在의 편차정도에 따라 자율신경처럼 원시뇌 뇌간과 구뇌 변연계의 자동모드에 의하여 氣發理乘의 원리로 발현이 되는 것으로 편차의 심화정도에 따라서는 不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당초부터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현도 어디까지나 理(principle)의 제어범위(乘) 안에서 理의 표현수단인 氣(material)가 발현(發)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氣發理乘의 원리를 적용하여 예방관리하고 그 不善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될 수 있으며,⁵⁴⁾ 또한 이것이 바로 각 개인의 표현 形質理에 따른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특성이 고려된 인간의 이해와 그들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철학이⁵⁵⁾ 氣發理乘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개인의 맞춤심신예방관리법뿐만 아니라 그 인간 사회의 건강한 관리를 위한 맞춤예방관리법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양화평지인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오태인의 다른 네 유형에 관한 특성의 차이도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렵다. 오태인의 각기 다른 특성들, 특히 단점으로 지적되며 때론 부정적으로 비하하는 듯이 기술된 특성들을 해당 체질의 타고난 고유의 특성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태인에 관한 황제내경의 내용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도 인류기후대적응론으로 그 개별 특성의 근본 발생원인을 이해하고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여 性發爲情의 현상을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차별이나 존엄성 침해의 오해 없이 이해될 수 있다.⁵⁶⁾ 왜냐하면 각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별로 각기 다른 특성들이 형성된 것은 서로 다른 기후대환경에 적응한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54) Aw^㉔형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형들도 장기선편재편차를 줄여주는(각주 17) 참조) 사전관리를 통하여 不善으로 진행될 수 있는 情의 발현을 예방하고 타고난 본래의 性이 和平하게 발현되도록 기초를 보강해줄 수 있다. 그리고 “공자는 천하국가를 고루 잘 다스리는 것이나 높은 관직을 사양하는 것이나 예리한 칼날을 밟는 것보다도 中庸이 어렵다고 강조하였는데(中庸: “子曰 天下國家可均也 爵祿可辭也 白刃可蹈也 中庸不可能也”), 이 中庸의 삶은 形質理에 맞게 性發爲情이 자연스럽게(不偏) 發하도록 장부선기편제의 편차를 줄여주는 맞춤예방관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조기호b, 앞의 논문, 192쪽 인용).

55) 조기호b, 앞의 논문, 168쪽 참조. 그리고 철학은 만학의 근본이요 만학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56)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는 것은 마치 중력법칙을 적용하여야 많은 우주자연현상들이 이해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며, 각 표현형별로 각기 다른 특성들이 발현되는 현상은 해당 기후대별로 理發氣隨에 의하여 형성된 形質理의 장기선편재특성이 해당 표현형별로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氣發理乘에 의하여 각기 다른 표현 形質理의 제어범위(乘) 안에서 그 특성들이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理氣論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李滉이 제안한 바와 같이 理가 乘한 상태에서의 氣發현상으로 설명해야 비로서 이해가 된다. 만약에 李滉이 강조한 理發氣隨氣發理乘을 적용하지 않고 理(理發氣隨에 의하여 형성된 표현 形質理)가 乘하지 않은 상태에서 氣의 작용을 설명한다면 오테인으로 구분된 발현특성들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자극이나 사안에 대해서도 乘한 理에 따라 표현형별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며, 불섭생으로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해당 특성이 형성된 기후대와 다른 기후특성을 지닌 기후환경일수록 오테인의 특성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氣發理乘에 의하여 서로 다른 부정적인 단점으로도 발현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理發氣隨로 형성된 각 표현형별 장기선편재의 形質理 그 자체는 누구나 타고나는 당연한 기본 心體에 속하는 것으로 不善의 근원이 아니며, 불섭생으로 그 편차가 심화된 경우의 心用에서만 不善이 발생할 수 있고(각주 53) 참조), 그 不善도 乘한 理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분되는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양화평지인을 제외한 오테인의 다른 네 체질들의 특성으로 부정적인 면들이 언급된 이유는, 해당 체질들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氣發理乘에 의하여 특성이 발현될 때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심화될수록(그림 1,2 참조) 각기 다른 특성들이 더 뚜렷하게 그리고 더 차별적으로 상이하게 부각되어 발현되기 때문에, 오테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점으로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

태인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된 특성들도 장기선편재의 편차가 감소할수록 발현되는 그 특성의 차이가 적어지고, 편차를 줄이면 不善으로의 진행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선편재의 편차감소법이 음양화평지인을 포함한 오태인에게 氣發理乘을 적용한 맞춤심신관리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그림 1,2, 각주 17) 참조). 이와 같이 이황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면, 오태인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발현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특성들이 편차심화상태에서 발현되면 不善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도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不善이 발현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맞춤관리법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理發氣隨氣發理乘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⁵⁷⁾

IV. 結 論

인류기후대적응론과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의 관점에서 유교철학 사상이 결합된 황제내경의 오태인 중 음양화평지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추 통천편에서 소사가 설명한 오태인에 대한 서로 다른 점과 구별하는 방법 및 치유법을 관련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의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특성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천편에서 소사가 설명한 태음지인은 기후대적응형질 기본 표현형 Af^θ형에 상응하는 특성을, 소음지인은 기본 표현형 Aw^θ형에 상응하는 특성을, 태양지인은 기본 표현형 Df[⊕]형에 상응하는 특성을, 소양지인은 기본 표현형 Dw[⊕]형

57) 각주 53), 조기호b, 앞의 논문 참조.

에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⁵⁸⁾ 그리고 음양화평지인은 기후대적응형질의 기본 표현형 Aw^{\ominus} 형에서 변화된 Aw^{\oplus} 형에게서, 理(principle: 人類進化理)가 발하고 氣(material: 人體)가 따르는 理發氣隨로 발생하는 形質理의 장기선편재특성이, 氣發理乘으로 形質理가 乘한 상태에서 편차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발현되는 특성에 가장 근접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⁵⁹⁾

그러므로 황제내경 통천편에서 소사가 설명한 음양화평지인은 서론의 첫 번째 추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가 그러한 심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이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추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오택인 중에서 태음지인, 소음지인, 태양지인, 소양지인과

58) 少師는 각 五態之人을 해당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발현되는 특성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설명한 각 五態之人에 상응하는 기후대적응형질 표현형들도 더 정확하게는 여성표현형인 Af^{\ominus} 형, Aw^{\ominus} 형, Df^{\oplus} 형, Dw^{\oplus} 형, Aw^{\oplus} 형보다는 남성 표현형인 $Af^{\ominus m}$ 형, $Aw^{\ominus m}$ 형, $Df^{\oplus m}$ 형, $Dw^{\oplus m}$ 형, $Aw^{\oplus m}$ 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조기호a, 앞의 논문, 38쪽 각주 23)).

59) 少師도 장기간의 임상경험을 통하여 기본 표현형 이외에 변형 표현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少師의 문화권과 다른 黃帝가 거주하던 문화권 사람들이 그의 전문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黃帝의 질문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양화평지인을 이상적인 인격체로 보는 관점이 책의 제작과정에서 반영되었거나 또는 오행론이 지배하던 시대에 다섯 분류를 선호하여 Dw^{\ominus} 형은 Aw^{\ominus} 형으로 Af^{\oplus} 형은 Aw^{\oplus} 형으로 Df^{\ominus} 형은 매우 드물어 임상경험이 없었거나 Af^{\ominus} 형으로 보면서 五態人으로 분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후대나 Ökumene의 특성은 주로 온도나 습도의 차이가 온냉이나 건습과 같이 상호양자로 대비되는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응형질은 홀수로 출현하기보다는 짝수로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이제마도 체질별 臟器線特性에 관한 연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양화평지인을 포함하여, 臟器線偏在 특성이 각기 다른 네 변형 표현형들을 더 세밀히 분류하지 않고, 五態人에서 陰陽和平之人을 제외하고 네 기본 체질로만 체질구분하면서 臟器線偏在의 표현 形質理 특성들이 후대에 밝혀져 자신의 체질이론이 개선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蓋針穴亦有太少陰陽四象人應用之穴 而必有升降緩速之妙 繫是不可不察 敬俟後之謹厚而好活人者”, 이제마, 앞의 책, 2002, 127쪽 참조).

함께 분류되는 또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타고난 理發氣隨의 장기선편재 특성이 氣發理乘으로 변화되어 그 편차가 감소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사가 설명한 바와 같은 양상의 심신특성이 Aw⁺형에게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장기선편재의 편차를 줄여주는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理發氣隨에 의하여 형성된 遺傳形質理에 맞게 氣發理乘의 원리를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는 Aw⁺형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각 장기선편재편차가 심화되기 전에 편차를 조절하여 形質理에 맞게 심신을 예방관리하는 것은, 본래의 性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기초를 보강하고 不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情의 발현을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李師朱堂과 崔漢綺의 기후적응인간관이 발전된 인류기후대적응론과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여, 인간의 심신과 그들이 구성하는 사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각 개인의 표현 形質理에 따른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특성이 고려된 인간의 이해와 그들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철학이 氣發理乘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개인의 맞춤심신예방관리법뿐만 아니라 그 인간 사회의 건강한 관리를 위한 맞춤예방관리법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유교철학사상이 결합된 황제내경 영추 통천편의 음양화평지인을 인류기후대적응론과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황제내경 통천편의 음양화평지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철학사상이 결합된 황제내경과 이동진화론적 관점에서 조명된 인류기후대적응론 및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에 관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학제간 협동연구가 진행된다면 본고의 내용이 보다 더 충실하게 개선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배병철, 『今釋黃帝內經 素問』, 成輔社, 1995, 57쪽.
- 배병철, 『今釋黃帝內經 靈樞』, 成輔社, 1995, 525쪽.
- 이사주당(1780), 최삼섭, 박찬국 역, 『역주태교신기』, 성보사, 2002, 53쪽.
- 이제마, 동의학연구소 역,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2002, 71쪽, 127쪽, 283쪽.
- 조기호a, 「李師朱堂의 氣候適應形質 考察」, 『한국여성철학』 15호, 2011, 29-66쪽.
- 조기호b,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學說의 理解와 應用」, 『退溪學과 儒敎文化』 49호, 2011, 165-198쪽.
- 조기호c, 「기후대별 환경적응체질의 발생과 특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2-2, 2006, 149-163쪽.
- 조기호·조한규,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람, 2008, 83-97쪽.
- 진순, 김영민 역, 『북계자의』, 예문서원, 2001, 81쪽.
- 최한기(1857), 손병욱 역, 『氣學 卷二』, 여강출판사, 1992, 223쪽, 251쪽.
- 허준, 동의과학연구소 역, 『東醫寶鑑』 제1권 내경편, 휴머니스트, 2002, 134쪽, 284쪽, 514쪽.
- 홍원식, 『黃帝內經靈樞解釋』, 『黃帝內經素問解釋』, 高文社, 1987, 25쪽, 81쪽.
- Browning JD, Szczepaniak LS, Dobbins R, et al. Prevalence of hepatic steatosis in an urb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mpact of ethnicity. *Hepatology* 40(6), 2004, pp.1387-95.
- Kumar R, et al., Genetic Ancestry in Lung-Function Prediction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3(4), 2010, pp.321-330.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07, pp.9-14, pp.69-73.
- WHO/WPRO, 표준경혈위치 한글공식판(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08, p.160.
- <http://www.bradshawfoundation.com/journey>, pp.1-20.

Abstract

The Meaning of Yin Yang(陰陽) Balanced Type in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Jo, Gi-Ho

In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Sosa(少師) describes five types of people.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se five types of people, especially the yin yang balanced type(陰陽和平之人). To compare these five types this study analyzes human constitutions as well. Constitution is the synthetic phenotype of characters adapting to different climate zones and thought to have developed as early humans moved from East Africa to different climate zones in other continents. These constitution phenotypes can be classified into eight phenotypes for human beings: four basic phenotypes (Aw^{\ominus} type, Af^{\ominus} type, Dw^{\oplus} type, Df^{\oplus} type) and four changed phenotypes (Aw^{\oplus} type, Af^{\oplus} type, Dw^{\ominus} type, Df^{\ominus} type).

The physical, emotional, ment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se eight phenotypes were compar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five types of people in Huang Di Nei Jing,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aem type (太陰之人)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Af^{\ominus} phenotype, the soeum type (少陰之人)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Aw^{\ominus} phenotype, the taeyang type (太陽之人)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Df^{\oplus} phenotype, the soyang type (少陽之人)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Dw^{\oplus} phenotype and the yin yang balanced type (陰陽和平之人) has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e Aw^{\oplus} phenotype.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ondition of natural traits of Aw^{\oplus} type to maintain the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condition in the same level that Sosa described as expressing characteristics of yin-yang balanced type. Yi Hwang's (李滉) theory "principle (nature) issues

and material (body) follows, material (body) issues and principle (nature) mounts” (理發氣隨氣發理乘) can be applied effectively to manage the secondary postnatal changing condition of natural traits of Aw[Ⓣ] type. Because the secondary changes of physical, emotional, ment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humans proceed under hereditary nature, according to Yi Hwang’s theory “body (body meridian) issues and nature (phenotypic principle) mounts”. Concretely, the declination level of weak and strong conditions of body meridians should be reduced applying the acu-magnetic therapy in the base of hereditary meridian principle of Aw[Ⓣ] type. Because the own maldistributed meridian principle of each phenotype is the origin of their physical, emotional, ment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the postnatal changing level between weak and strong declination conditions of meridians is the major cause of the disorder and expression level of human emotion and behavior. This is the personalized preventive method applying the phenotypic principle of each subject, and the method for managing not onl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individual but also the health of society, which apply the theory “principle issues and material follows, material issues and principle mounts(理發氣隨氣發理乘)” from Yi Hwang(李滉).

Key Word

Huang Di Nei Jing, yin yang balanced type, trait, character, phenotype, human behavior, Yi Hwang, nature, principle, material, character, climate, personalized preventive medicine, meridian, health, constitution, nature versus nurture

▪ 논문투고일 : 2012.6.13 심사완료일 : 2012.7.31 게재결정일 : 2012.8.6